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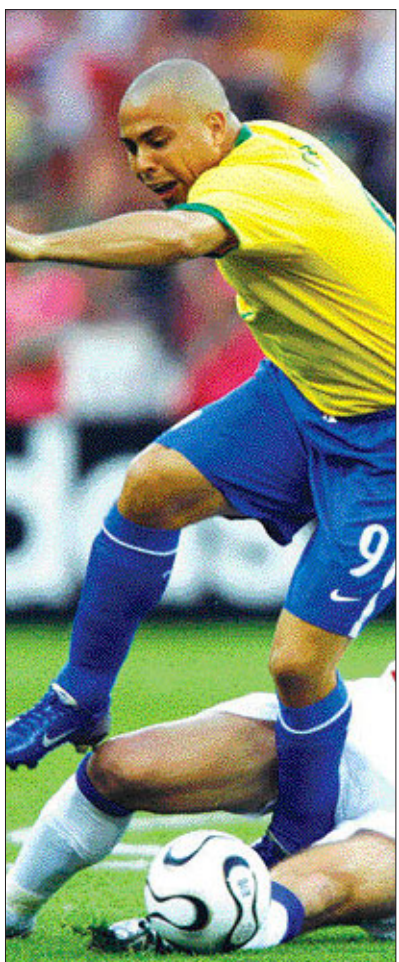
■ BEST & WORST

BEST '해결사' 입증



▲안정환(한국 공격수) = 한국 골잡이 안정환(30·뒤스부르크)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미국전과 16강 이탈리아전에서 각각 동점골과 결승골을 터뜨린 해결사였다.
그는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도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골든보이'였다.
안정환은 14일(한국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벌어진 G조 조별리그 1차전 토고와 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27분 기습 중거리슛으로 골망을 흔들어 한국에 귀한 승점 3을 안겼다.
안정환은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는 숨은 스트라이커로서 일투족마다 토고 수비진에 커다란 심적 부담을 안겼다.
토고의 전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도 후반과 동시에 안정환이 전면 공세의 키를 쥐고 투입된 뒤부터라는 평가다.
FIFA 기술연구그룹은 안정환을 경기 최우수선수로 뽑으면서 "토고는 후반 초반에도 수비를 견고히 하는 전술을 유지했지만 한국은 점차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안정환이 경기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고 밝혔다.
TSG는 "한국이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세 가지"라며 "안정환이란 훌륭한 선수가 있었고, 토고의 아발로가 퇴장당했고, 후반전에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축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WORST '골잡이' 침묵



▲호나우두(브라질 공격수) = 골잡이의 대명사는 '호나우두'. 언제부턴가 그가 골을 터뜨리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침묵하면 이상한 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의 골결정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호나우두(30·레알 마드리드)는 14일 열린 F조 1차전 크로아티아와 경기에 선발로 나왔지만 몸이 무거운 듯 주춤하다가 결국 골 맛을 보지 못했다.
브라질 범범 공격수 호나우두는 69분을 뛰다가 영건 호비뉴와 교체돼 벤치로 들어가는 '수모'까지 당했다.
카를루스 알베르투 파헤이라 브라질 감독은 "호나우두는 두 달 동안 경기를 뛰지 못한 만큼 리듬을 타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분명히 지금까지 조급씩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에서 '과체중 논란'이 쏟아지고 잦은 부상을 겪으면서 축구팬들도 서서히 그의 기량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만큼 이날 경기는 호나우두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일전이었다.
무거운 몸과 빠른 호나우두는 '경의'였지만 이날처럼 빠르지 않고 무거운 호나우두는 '배신'이었다.
호나우두는 이번 대회에서 3골만 터뜨리면 게르트 뮐러의 월드컵 최다골 기록(14골)을 갈아치우지만 이 또한 의심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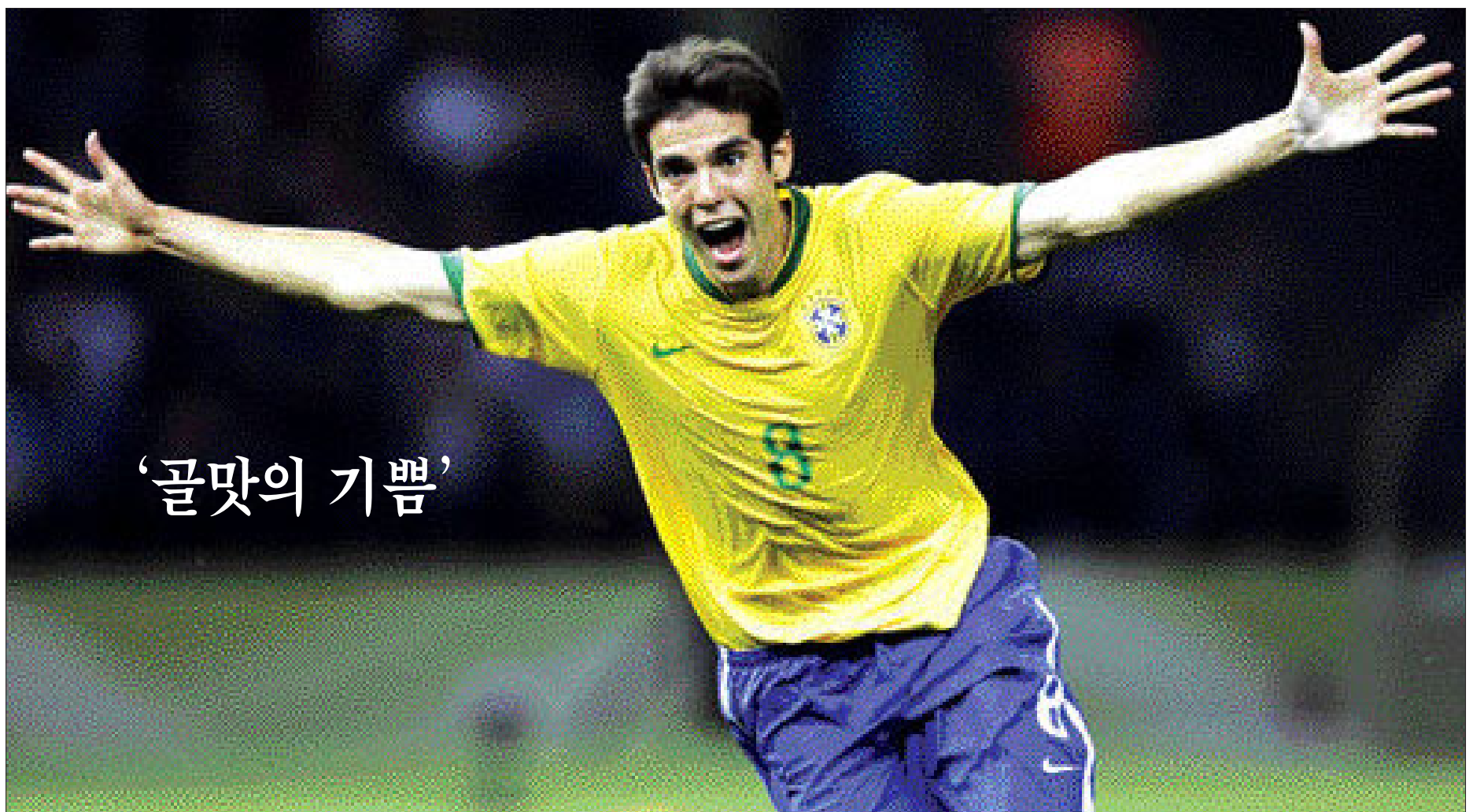
■ 주요 경기 전망

16강행 길목...물러설 수 없는 한판

에콰도르-코스타리카전 (오늘 밤 10시)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가 15일(이하 한국시간) 밤 10시 독일 함부르크 월드컵경기장에서 코스타리카를 맞아 16강 진출의 향방을 결정할 일전을 치른다.
당초 A조 약체로 평가됐던 에콰도르는 지난 10일 첫 경기에서 강한 공격력을 지닌 폴란드를 2-0으로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사상 첫 16강 진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특히 조별 리그 3차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전차군단' 독일을 만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인 코스타리카를 반드시 꺾겠다는 각오다.
에콰도르가 2차전까지 이기면 2승(승점 6점)으로 이미 1패씩 떠안은 코스타

리카와 폴란드를 따돌리고 A조 2위 안에 무난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독일월드컵에서는 짜임새 있는 조직력과 안정된 공·수 능력을 보여주며 한껏 분위기가 고조돼 있다.
이번 우르타도-올리세스 데라크루스-조반니 에스피노사-네이세르 레아스코로 짜여진 포백(4-back) 라인인 폴란드의 강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벽 수비를 자랑했다.
또 1차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187cm의 장신공격수 아구스틴 델가도와 힘이 좋은 카를로스 테노리오 등이 주도하는 공격도 날카롭다.
북중미의 복병 코스타리카는 독일과 개막전 2-4로 패배 때 혼자 2골을 터뜨린 스트라이커 파울로 안초페와 정확한 슈팅력을 갖춘 로날도 고메스 등 선수들의 개인기를 앞세운 공격이 막강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골맛의 기쁨'

14일 베를린에서 열린 크로아티아전에서 1골을 넣은 브라질의 카카가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삼바군단' 6회 우승 향해 힘찬 시동

카카 결승골... 브라질 8연승 신기록

■ 브라질-크로아티아 (1-0)

세계 최강 '삼바군단' 브라질이 동유럽 다크호스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화려한 공격 폭이 적격적으로 공격에 가담해 90분동안 크로아티아를 압도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걸터잡은 크로아티아의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브라질은 전반 14분 카를루스가 미드필드 중앙에서 기습적인 왼발 캐논 슈팅으로 골문을 두드렸으나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고 호나우두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패린 슈팅도 골키퍼 선방으로 무산됐다.
브라질의 공세를 잘 막아내던 크로아티아는 전반 38분 브라질 진영 왼쪽에서 얻어낸 프리킥에서 다리오 스크나(도네츠크)가 올린 크로스를 보고 이고르 투도르(시에나)가 골문 앞으로 뛰어들며 머리를 내밀었지만 빗나갔다.
브라질은 위기를 넘기더니 전반 종료 직전 첫 골이자 결승골을 뽑아냈다.
44분께 카카가 오른쪽 미드필드에서 올린 긴 패스를 아크 왼쪽에 있던 카카가 이어받아 기습적인 왼발 슈팅을 날렸고 볼은 크로아티아 골문 왼쪽 상단을 갈랐다.
크로아티아는 18일 오후 10시 뉘른베르크에서 일본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스위스 조직력 탄탄... 승부 못가려

■ 프랑스-스위스 (0-0)

2006 독일월드컵축구 G조 최강 프랑스가 난적 스위스와 특점없이 비겨, 한국이 조 1위로 나섰다.
'레 블뢰' 프랑스는 14일 오전(이하 한국 시간) 슈투트가르트 고틀리브-다임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알프스 전사' 스위스의 조직력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0-0으로 비겨 승점 1을 따내는 데 그쳤다.
이로써 G조에서는 토고를 2-1로 격파한 한국이 선두에 나섰다.
월드컵 유럽지역예선에서도 스위스와 한조에 속해 두 차례 대결에서 모두 비긴 프랑스는 이날 몇 차례 결정적인 득점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무릎을 가리지 못했다.
두 팀은 시종 팽팽하게 맞섰다.
프랑스는 전반 8분 율토르의 크로스에 이은 앙리의 헤딩슛이 골대를 훌쩍 넘어갔고, 15분엔 사늘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살짝 찍어 차 준 것을 반대편에서 비에라가 오른발 발리슛을 날렸으나 이 또한 원 마운드

로 골대를 벗어났다.
스위스는 전반 24분 파트리크 비에라의 반칙으로 미드필드 왼쪽에서 열린 프리킥 찬스에서 바르네타의 오른발 킥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이를 잡은 프라이의 슈팅마저 골문을 훌쩍 넘어가 땅을 쳤다.
프랑스는 전반 38분 수비수 센데로스의 실책을 틈타 페널티 지역 안까지 파고든 리베라가 중앙으로 연결한 볼을 티에리 앙리가 잡아 페널티지역 내 정면에서 날린 오른발슛이 스위스 수비수 파트리크 뮐러의 왼손에 맞았지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다.
주장 지단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랑스는 후반 들어서도 이렇다할 골 기회를 잡지 못했다. 오히려 후반 20분 스위스 마냥의 왼발 프리킥과, 후반전 초반 교체 투입된 다니엘 기각스에게 골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을 허용, 골키퍼 바르네즈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다급해진 프랑스는 후반 25분 리베라를 빼고 공격수 루이 사이를 교체 출전시켰지만 골대 스위스의 골문은 열지 못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부상의 고통'

13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스위스전에서 부상을 당한 프랑스의 티에리 앙리가 다리를 붙잡고 그라운드에 누워있다. /AP=연합뉴스